



三國遺事 臺本探索

저자 (Authors)	曹壽鶴
출처 (Source)	모산학보 6 , 1994.6, 87-119 (33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인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14286
APA Style	曹壽鶴 (1994). 三國遺事 臺本探索. 모산학보, 6, 87-11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8 10:2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 臺本探索*

曹 壽 鶴**

차 례

I. 문제 제기

- 1) 「遺事」의 撰述 태도
- 2) 「遺事」의 성격

II. 「殊異傳」은 「遺事」의 引用 書目에서 默秘하였다.

- 1) 「수이전」逸文 중 「유사」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
- 2) 「유사」에 出傳이 「수이전」임을 直·間接으로 나타난 작품
- 3) 「수이전」의 逸文을 인용하고 출전을 밝히지 않은 작품

III. 「수이전」作品 探索과 그 擴大

- 1) 兩書의 異同性과 「수이전」의 要件
- 2) 「수이전」작품 탐색과 확대 적용

IV. 맺는 말

I. 문제 제기

「삼국유사」(이하 「유사」라 함)는 일찍부터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우리의 고전이다. 六堂을 비롯한 국내의 연구는 수 백편에 이를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주로 일인 학자 들의 연구가 괄목할만 하다. 멀리는 小倉進平의 〈鄉歌 及 吏讀의 研究〉를 비롯해서 가깝게는 三品彰英을 중심으로 한 삼국유사 연구회가 조직되어 「삼국유사 고증」上, 中 두 책을 통하여 철저한 고증을 이룩했다.)

* 이 논문은 1994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집필된 것임.

** 영남대학교 교수

1) 「三國遺事 考證」下的 출판이 무슨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었으나, 근자에 출판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사」를 연구하는 視角은 몇 가지면에서 재고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삼국사기」(이하 「사기」라 함)와 대비해서 민족 주체성을 논하는 문제도 이해하기 어렵고, 찬술자 일연선사의 철저한 실증 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실증하였으며, 또한 그 실증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할 것이고, 「유사」의 내용이 '실라 일변도'문제는 대개의 논자들이 찬자의 성장 활동 영역이 新羅에 한정된 것과, 신라 통삼 후의 자료적인 제약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다른 방향으로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삼국시대의 종교는 儒·佛·道를 막론하고 외래 종교였고²⁾,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질적인 것이 불교였고³⁾, 가장 동질적인 것은 아마도 유교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事大主義가 유교에 있다면, 고려시대의 대표적 사대주의는 불교일 것이며, 오늘날의 대표적 사대주의는 아무래도 기독교와 서구 문화에 맹종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⁴⁾

2) 오늘날 儒·佛·道는 일천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종교로 정착되었다. 이에 비한다면 서양 종교는 아직 외래 종교라 할 수 있다.

3) 신라에 불교가 수입되는데 약 100년간의 알력이 있었다. 訥祗麻立干 때에 沙門 墨胡자가 들어와서 法興王 때 異次頓이 殉教하기에 이르기까지 '童頭異服 談論奇詭'라 排斥했다.

4) (1) '事大'란 전체 文化적인 사대를 의미한다. 조선 후기에 끝까지 淸 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를 事大한 것은 文化적인 사대였고, 힘의 사대가 아니었다.

(2) 「유사」와는 상대적으로 “「사기」는 유가적이고 사대사상에 젖은 역사관이며, 「유사」는 민족적인 사관이다.”라고 하는 사학자에게 「사기」의 어떤 점이 사대적이나? 물어보면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혹 〈古朝鮮〉 즉 檀君神話의 수록여부를 두고 말하는자가 있으나, 「사기」는 '삼국'의 범위를 지켜서 기록했고 「유사」는 그 범위를 일탈하고 있음을 관과하고 있다. 「유사」 본문 제목에 '南海王, 弩禮王, 脫解王'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기」에서는 '南海次次雄, 儒理尼師今, 脫解尼師今'으로 되어 있으며, 삼국, 즉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모두 중국 황제와 같은 本紀로 쓰고 있으며, 進三國史表에 이르기기를 “今之學士大夫 其於五經諸子之書 秦韓歷代之史 或有淹通而詳說之者 至於吾邦之事 却茫然不知其始末 甚可歎也”라 하였으니, 즉 “지금의 학사 대부분이 중국의 역대사에는 엄통하면서 우리 나라의 일에는 아득히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을 보더라도 김부식을 사대가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이와 같은 誤論의 시초는 六堂의 「유사」해제 〈五. 價値〉를 논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후속학자 역시 너무 無思慮 하였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일수록 서구문명의 신봉자가 많고, 동양적인 것은 사대적인 것으로

1. 撰述者의 態度

「유사」의 撰述者 金一然은 불교를 信奉하는 스님이다. 신봉자는 때로는 神祕體驗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모든 神異도 사실로 믿게 마련이다. 神異는 合理的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事例로써 실증하려고 노력하였다.⁵⁾ 그러므로 「유사」의 모든 이야기는 神異적인데 초점이 있고, 그 신이의 원동력은 佛力으로 귀결된다.

그러한 예로서 그는 〈延烏郎 細烏女〉전설을 사실로 믿고 있는 나머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첫머리에서 ‘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라고 때를 확정하고, 또 철저하고 겸손하게 細註를 달기를 “「日本帝記」를 살펴보니 ‘아달라왕’전후에 신라인이 왕이 된자가 없으니, 이는 아마도 邊邑의 소왕이요 진왕이 아니다.”⁶⁾라고 한것으로 보아 그는 傳說을 사실로 믿고, 「日本帝記」라는 책을 열람했다고 하는데, 「일본제기」라는 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⁷⁾

또 〈射琴匣〉에서 “...時有烏與鼠來鳴 鼠作人語云 此烏去處尋之...” 아래의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六堂의 史觀도 역시 당시 日人들의 造史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同書 해제 〈七. 評議〉에서 「유사」의 가치는 ‘誕怪’한데 있다고 하였는데 ‘탄괴’를 어떻게 歷史와 함께 논할 수 있는가? 그의 〈不威文化論〉도 造史적인 면이 짙다. 李在秀는 「유사」도 稗官文學의 일종이라고 말 하였다. 그러므로 「사기」는 우리의 귀중한 史書요, 「유사」는 우리의 귀중한 說話集이다. 그러므로 역사와 실화를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 5) 宗教家의 神祕體驗이나 또는 신비한 이적들을 믿는 점에 있어서는 迷信과 다를 바가 없다. 創造主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종교가가 말하는 모든 神은 인간이 창조하였다.

인간의 限界性은 신도 내세도 전세도 모르는 것이다. 모르면 신이고 알면 학문이다. 모르는 세계를 안다고 꾸며내는 행위는 僭越이다.

종교의 원리가 비록 악의는 아닐지라도 거짓임에는 틀림 없다. 원초적으로 인간은 고독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비록 거짓인 줄 안다 하더라도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믿음이 설 땅을 얻게 된다.

믿고 살려는 편안하겠지만 믿어버리면 더 이상 진리에 접근할 수는 없다.

- 6) ...按日本帝記 前後無新羅人爲王者 此乃邊邑小王 而非眞王...

- 7) 「유사」에 이와 같은 예는 더러있다. 〈古朝鮮〉 첫머리에 ‘魏書云’하였으나, 일찌기 六堂의 해박한 안목으로 ‘위서’임직한 모든 서적을 盡涉하고도 끝내 〈檀君神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바 있다. 혹시 「일본서기」를 ‘제기’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은 있다.

세주에는 “或云 神德王 欲行香輿輪寺 路見衆鼠舍尾 怪之而還占之 明日先鳴 烏尋之云云 此說非也…”라고 하였는데 이 세주의 ‘衆鼠舍尾’설을 자신있게 ‘非也’라고 부정하는 근거는 본문의 ‘鼠作人語云’설을 ‘是也’ 또는 ‘眞也’로 믿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말인즉, 김일연의 「유사」 찬술 태도는 說話意識에서 찬술한 것이 아니라 事實意識에서 찬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종교가는 간혹 神祕를 체험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神異도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실증자료로 삼고 있다.

「유사」의 내용이 신라 중심으로 구성된 원인에 대한 ‘잔존 문헌의 제약성’과 찬술자의 ‘생장 활동범위의 한계성’이라는 종래의 통설은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史記」에 엄연히 있는 〈高句麗本紀〉와 〈百濟本紀〉를 거의 도외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해 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찬술자가 오직 신라만이 前佛時 伽藍之墟⁸⁾로써 ‘法水長流之地’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그의 前佛地思想은 터전에 그치지 않고, 인물에 관해서도 나타난다.

…貞觀 10년(636)에 자장법사가 중국에 유학하여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불법을 전수받았다. 문수보살이 또 이르기를 “너희 나라 국왕은 천축의 刹利種王인데 일찌기 佛記⁹⁾를 받았으므로 별다른 인연이 있어, 동쪽 오랑케의 共工¹⁰⁾ 족속과 같지는 않았다.”…¹¹⁾라고 하였다.

-
- 8) 「유사」권 제3, 흥법 제3, 〈阿道基羅〉, 韓奈麻 撰. 我道本碑 내용, 즉 “…興輪寺址, 永興寺址, 黃龍寺址, 芬皇寺, 靈妙寺址, 天王寺址, 曇嚴寺址… 皆前佛時 伽藍之墟”라 하였고, 또 「유사」권 제3, 塔像 제4, 〈皇龍寺丈六〉에는 ‘汝國黃龍寺乃釋迦與迦葉佛講演之地’라 하였으며, 또 「유사」권 제4, 義解 제5, 〈寶壤 梨木〉에는 鶴岬寺址를 ‘前代 伽藍之墟’라 하였다.
- 9) 佛記는 懸記와 別記가 있는데, 여기서의 별기를 말한듯하다. 불교 이치를 깨달은 자에게 주는 본인의 미래 제상에 관한 기록을 별기라 함.
- 10) 共工은 중국 요순 시대에 매우 흥포했다는 족속.
- 11) 「유사」권제 3 塔像 제4, 〈黃龍寺九層塔〉… 慈藏法師西學 乃於五臺感文殊授法文殊又云 汝國王是天竺刹利種王 預受不記 故別有因緣 不同東夷共工之族…

또 前佛時란 대략 언제의 일을 말하는가?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 보면, 역시 ...자장법사가 중국에 유학하여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비결을 전수받았는데, 부탁하기를 “너희 나라 황룡사는 곧 석가와 가섭불이 강연을 한 곳으로 그 연좌석이 아직 거기에 있다. 이때문에 천축의 無憂王이 황철 약간근을 모아 가지고 바다에 띄워서 1천 3백 여년을 지난 후에 그것이 너희 나라에 닿아 불상을 만들어 그 절에 모시게 되었으니…….”¹²⁾라는 대문이 있다.

그러니까 황룡사를 완성한, 진흥왕 30년(549)에 황철과 금을 실은 배가 1천 3백 여년이 걸려서 도착했다고 하였으니, 전불시는 대개 BC 8세기 경에 해당된다. 그러나 미륵불에 대한 전불인 석가불을 말한다면 BC 6세기경에 해당되고, 석가불에 대한 전불인 가섭불을 말한다면 賢劫 이전의 莊嚴劫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불시라 한 것은 가섭불에서 석가불까지를 포괄한 말인 듯하다.

이와 같은 기록들도 「유사」의 찬술자 김일연은 이를 사실로 믿고서 실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타의 많은 荒唐無稽한 영감적 전설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많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2. 「유사」의 性格

위와 같은 찬자의 태도에서 볼 때, 「유사」의 찬술 동기는 오로지 佛教弘通에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책의 구성도 歷史 분야에 속하는 〈王曆〉편과 野史 분야에 속하는 〈紀異〉편과 佛力の 神異를 과시한 〈興法〉, 〈塔像〉, 〈義解〉, 〈神呪〉, 〈感通〉, 〈避隱〉, 〈孝善〉 등을 한 책으로 엮었다. 이것은 얼른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지 모르나, 김일연의 견해로서는 동일한 事實적 次元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12) 「유사」권제 3 塔像 제4, 〈黃龍寺 丈六〉

13) 「유사」기이 제1, 「敍曰……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

「유사」는 책의 내용으로 봐서 거의 ‘述而不作’¹⁴⁾임에 틀림이 없고, 또 약간의 개인의 말이나 詩를 인용한 것이 있기는 해도 街談巷語나 途聽塗說도 아니다. 신화, 전설, 지괴, 전기, 민담, 일화 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어떤 기록이나 증거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유사」의 인용 書目은 약 14류 159책 242회(一作 一云 등 제외)¹⁵⁾에 달하는데, 이 방대한 인용서 가운데 「수이전」을 인용한 것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그 출전을 밝힌 것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3편이 있을 뿐이며, 나머지 8편에 대하여는 아주 默秘해 버렸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主體省略’이 적용되어 主臺本 생략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목적수행에 방해되는 요소는 歪曲, 默秘시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목적이란 곧 佛敎弘通임을 전술하였다.

첫째, 主體省略의 경우: 위와 같이 「유사」의 인용서가 159책 242회나 되고, 「수이전」의 일문과 동일한 작품이 11편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이전」이 출전임을 밝힌 것은 거의 없다. 그것은 아마도 「수이전」이 「유사」의 중심되는 臺本 즉, 주체생략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明, 徐師曾의 「文體明辯」序說 總論에는 劉翊의 「文心雕龍」, 摯虞의 「文章流別志論」등 약 60 책, 120회 引用書目を 들고 있으면서도, 「문체명변」과 거의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된, 약 百年前 吳訥의 「文章辨體」에다가 문장 종목만 늘려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서목에는 전혀 말이 없는데, 이 역시 「문장변체」가 바로 「문체명변」의大本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主體省略의 사례는 옛 찬술자들의 관례로도 생각된다. 현대에도 자기나 자국것에 대하여는 ‘국문’ ‘국산’등으로 통하는 것과 같은 사례라 생각된다.

14) 최남선, 「유사」해제, 〈8 인용서〉

15) 崔南善: 〈삼국유사 해제〉 8 引用書目에서 집계 한 것임.

둘째, 방해요소의 歪曲과 默秘의 경우: 찬술자의 집요한 목적의식이 개입하여 原文의 방향을 왜곡하거나 지나친 윤색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출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개 목적의식이 정치적 이데오로거나 종교적 신봉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語不成說의 근본적 전제에 대하여는 아예 없는 것처럼, 또는 못 본체 묵살하고, 지엽적인 사실만 부각시켜서, 그것이 전부인양 강조함으로써 민중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유사」에도 그러한 실례가 더러 발견된다. 〈射琴匣〉 전설의 경우, 內殿의 梵修僧이 宮主와 ‘潛通而所奸’해서 王을 살해하려고 琴匣속에 숨었다가 발각이 되어 伏誅되고도 一言之 반성도 없이 ‘鳥忌之日’ 즉 “까마귀를 꺼리는 날”이라고 해서 찰밥으로 제사를 지내고 “俚言恒切” 즉 “속말로 슬프고 근심하여 백사를 금기한다.”라고 하여 보름날 까마귀를 꺼려서 (까마귀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찰밥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¹⁶⁾이 일연선사가 생존한 당시까지 행하여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계속해서 오늘날 보름의 약밥을 해먹는 由來談으로 방향이 돌려져 있으나, 이 이야기의 근저에는 친불 세력과 배불 세력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엄청난 사건이 도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16) 이 대문의 해석 문제: 이른바 正德本(中宗 壬申:1512)原文에는 「以十六日爲鳥忌之日以糲飯祭之至今行之」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十六日’에 대하여 민족문화추진회 校勘本에서 ‘恐是五字之訛’라고 하였는데, 분명한 六자를 왜 五자의 잘못으로 보는가? 보름날 찰밥 해 먹는 유래담으로 보는 선입견 때문에 생긴 訛見이라 생각된다. 출전으로는 보름에 약밥해 먹는 유래와 관계 없는 것을 牽強附會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 생각한다.

이 해석의 요점은 ‘鳥忌之日’과 ‘糲飯祭之’이다. 먼저 ‘오기지일’에 대하여 리상호(북한과학원 고서 연구실)는 註에서 ‘기일은 제사날’이라고 하였고, 李東勳(고려대)은 주에서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까마귀를 꺼려하는 날’이다.”라고 하여 사실을 밝혀놓고도 매우 자신 없는 태도이다. 역시 선입견이 작용한 듯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들은 리상호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원문 어디에도 ‘기사를 인도한 까마귀가 죽었다’는 말은 없다. 죽지도 않은 까마귀를 왜 忌祭祀를 지내는가? 중들에게 까마귀는 totem이 아니라 taboo이다. 따라서 간통승의 입장에서는 ‘糲飯祭之’의 ‘祭之’도 ‘까마귀에게’가 아니라 ‘부정한 까마귀를’ 멀리하는 卍타거리 ‘祭之’로 해석 해야만 할 것이다.

이다.¹⁷⁾

까마귀가 인도해준 덕분에 姦通僧을 적발하고 왕이 죽음을 면하였는데 왜 까마귀를 꺼리는가? 꺼려야 할 사람은 간통을 상습하는 몇 사람의 중이나, 신라에 불교를 공행할려다가 실패한 친불과 조정 신하들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유사」권 제5, 孝善 제9의 〈眞定師 孝善雙美〉나 〈大城孝二世父母〉등은 모자간에 생이별을 하는 것을 부처님께 시주한 공덕으로 찬양해 놓았으며, 〈손순매아〉는 부모 자식간의 의리를 끊어 놓고도 대단한 孝善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비단 일연선사만의 '惑'이 아니라 불가의 惑이요, 나아가서는 모든 정신적 지배층의 惑이기도 하다.¹⁸⁾

그리고 默秘의 예는 묵비로 인해서 찾기는 어렵지마는, 現傳 「수이전」의 逸文 16편 중, 11편의 내용을 제목을 바꾸어서 실고 있으면서도 정식으로 出典을 말하지 않은 것이 묵비의 단서이다.¹⁹⁾ 「유사」의 찬술 以前에 「유사」와 가장 성질이 비슷한 내용의 「수이전」이 4종류나 나타나고 있는데, 「유사」의 찬자 김일연이 이를 참고하지 안했을 이가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學證은 다음 장에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사」의 찬술자 김일연은 불교를 신봉하는 독실한 종교가 이다. 신봉자는 深醉하기 마련이고, 심취하면 萬象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신봉하지 않은 純粹한 學徒의 눈으로, 既存

17) 조수학: 〈射琴匣〉說話 研究, 영남대학교 「인문연구」 제7집-2, 1985년.

18)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리면에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믿는 자의 그 착한 마음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다. 고독한 생명으로 태어난 중생이 비록 거짓이라 하더라도 절대자라 하는 것 밖에 더 믿을 것이 없음을 인정한다.

19) 대개의 「수이전」 逸文에는 제목이 없다. 그 중 제목이 있는 것으로, 「태평통제」의 〈보개〉를 「유사」에서는 「민장사」로, 「대동운부군옥」의 〈호원〉을 〈김현감호〉로 바꿈 것 등이 있다.

글에서 제목을 바꾸는 것은 사람에게서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불교에서 剃度受具하면 성은 釋氏로 이름은 法名으로 바꾸며, 천주교에서 영세를 하면 본명을 쓰게되며, 일제의 창씨개명 등은 모두 完全支配를 위한 수단이었다.

知識을 白紙화하고 우리의 귀중한 「유사」를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더 중요한 「수이전」의 모습을 探索해 내자는 것이 본고의 趣旨이다.

II. 「殊異傳」은 「遺事」의 引用 書目에서 默秘하였다.

현전, 「殊異傳」의 逸文으로 전해지고 있는 작품을 다음과 같이 類別해 보았다.

史類：野史類；脫解王，善德王 知機(一事).

僧傳類；釋阿道傳，法空傳，法雲傳，圓光傳，寶壤傳，備虛傳(內容 不傳)

佛事類；寶開(「유사」의 敏藏寺)

傳說：延鳥郎 細鳥女，

小說：首插石楠，心火繞塔，崔致遠，虎願.

幻術：竹筒美女，老翁化拘.

1. 「수이전」 逸文 중 「유사」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

이상이 현재까지 발견된 「수이전」의 逸文 16편이다. 그 중에서 幻術 2편과 小說에 해당하는 4편 중 〈수삼석남〉과 〈최치원〉 2편은, 「유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사」에서는 「수이전」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것은 수록하고 어떤것 제외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밝혀보면 「수이전」과 「유사」의 관계 및 兩書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는데, 일조가 되리라 생각한다.

논급의 경제상 수록된 작품에 대하여는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제외된 작품을 중심으로 언급코자 한다.

첫째, 「수이전」의 〈竹筒美女〉²⁰⁾ 나 〈老翁化虎〉²¹⁾와 같은 幻術에 해당하는 것은 「유사」에 수록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1) 비록 두 이야기에는 김유신이란 실제 인물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이야기의 據點으로 이용하였을 뿐이지 실제의 김유신과는 아무런 의미 관련이 없으며, (2) 무슨 인생사와 관련된 주제의식도 부각되지 않으며, (3) 화자의 태도에도 이를 事實로 수용한 다던가 아니면 異蹟이나 靈蹟의 신비성을 전달하려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4) 다만 독자로 하여금 이상야릇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데 그치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불력을 과시하려는 「유사」에 실게 되면 佛教弘通에 방해가 될 것이므로 실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둘째, 소설 두편과 소설일 가능성이 짙은 것 두편, 합 4편 중 전기소설로 인정되는 〈虎願〉은 〈金現感虎〉란 제목으로 「유사」권 제5, 感通 제7에 실었고, 축약하지 않았다면 소설일 가능성이 있는 〈心火繞塔〉은 「유사」권 제4, 義解 제5 〈二惠同塵〉조에 ‘志鬼心火出燒其塔’이란 대문이 나타나므로 인하여 〈심화요탑〉이 하나의 실제사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首插石柵〉 역시 축약하지 않았다면 전기소설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 전기소설로 인정되고 있는 〈仙女紅袋〉의 주인공 崔致遠은 단순한 이야기의 거점으로 대두시킨 것이 아니며, 인생사와 깊숙히 관련되고 주제의식도 분명히 나타나며, 話者의 태도에도 신비성을 믿게하는 태도가 있는 작품들로, 단순한 흥미거리의 이야기로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편이 「유사」에서 제외된 것은 佛力이나 佛事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추정의 근거는 「유사」에 수록한 작품의 내용을 反對解釋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같은 애정문제를 취급한 작품이지마는 〈虎願〉과 〈心火繞塔〉이 언급된 이유는 유독 이 작품에서만 佛事佛力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호원〉에서 주인공 김현과 虎女의 사랑은 興輪寺 塔돌이에서

20) 「태평광기」〈陽羨書生〉의 변형임.

21) 「유사」〈기이〉제 2, 〈가락국기〉의 수로왕과 탈해의 ‘角術說話’의 변형임.

이룩되었고, 김현이 호녀의 형제들로부터 위기를 모면케 한 것은 ‘호랑이의 악행을 응징하겠다는 天唱’에 의하여 구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낭군의 출세를 위하여 자기몸을 희생하는 호녀의 소원에 의하여 虎願寺를 짓게된 寺刹緣起說話로 귀착되는 불교적 설화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심화요탑〉은 주인공 志鬼의 心火로 인하여 靈廟寺의 탑이 불탈적에 惠空和尚이 미리 색기줄을 쳐놓은 金堂과 樓門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佛僧의神通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 권지 15와 20에는 「수이전」이란 출전을 밝히고 있는데, 「유사」의 〈惠同塵〉과 〈김현김호〉에는 전혀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2. 「유사」에 出典이 「수이전」임을 直·間接으로 나타난 작품

위의 4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12편이 「유사」에 실려 있는데, 이 12편 중 「유사」에 직접 「수이전」임을 밝힌 것은 〈원광법사전〉 1편 뿐이고, 제목만 전하는 「備虛傳」은 “「신라수이전」의 개작자가 犬城事를 「비허전」에 끌어 넣었다”²²⁾는 기록으로 보아서 개작 「신라수이전」의 작품임을 알 수 있으며, 또 〈석보양전〉도 역시 鄉人 金陟明이 개작한 「신라수이전」에서 ‘寶壤師之 事跡’²³⁾을

22) 〈비허전〉의 ‘釋 備虛’에 대한 人的 사항은 알길이 없고, 김척명이 덧붙였다는 犬城事는 “보양사가 推火(밀양)의 봉성사에 있을 때, 태조(고려)가 동쪽으로 정벌해서 청도 부근에 이르렀는데, 산적들이 犬城에 집결하여 교만히 굴면서도 대적해 오지 않으므로 태조가 산 아래에 있는 보양사에게 이를 쉽게 제어할 방법을 물었다. 보양사는 대답하기를 ‘대저 개라는 짐승은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지키지 않으며, 또 앞은 잘 지키면서 뒤는 잘 잊어버리니, 마땅히 낮에 북쪽으로 쳐들어 가면 될 것이다.’ 태조가 그 말대로 공격하여서 항복시켰다. 태조가 보양사의神通한 모책을 가상히 여겨서 부근 고을의 조세 50석을 향화로 받치게 했다.”는 내용이 개작 「수이전」에 실린 〈비허전〉의 일부로 짐작된다.

23) 보양사의 사적은 「해동고승전」 권 제2, 〈원광〉편의 중간 부분에 실린 내용과 「유사」 권 제4, 의해 제5의 〈보양 이목〉편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 같은 작품으로 인정됨. 후자가 상세함.

〈광사전〉에 ‘合爲一傳’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인하여 비로소 개작 「신라수이전」의 작품임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 9편은 모두 다른 文典들에서 「신라수이전」 또는 「수이전」으로 그 출전을 밝혀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9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작품들을 「유사」에서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해 놓고도 출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述而不作」으로 엮어진 「유사」의 작품에 출전이 없을 이가 없다.

〈원광법사전〉 한 편도 실은 처음부터 출전을 「수이전」임을 밝혔려고 한 것이 아니고 「唐續高僧傳」13권에 실려 있는 〈원광법사전〉의 내용과 東京安逸戶長 貞孝家에 있는 古本 「殊異傳」에 실려 있는 〈원광법사전〉의 내용이 너무 현격히 달라서 어느것이 眞本임을 밝힐 수 없으므로 이를 ‘兩存之’하였고, 두 가지를 다 남겨 두는 이유를 밝히자니, 자연 출전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兩存之’ 끝에는 “이 두 전기에는 다 「鵲岬璃目과 雲門之事」를 기록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鄉人 金陟明이 그릇되게 街巷之說을 덧붙여서 〈光師傅〉을 지으면서, 함부로 雲門의 開山祖인 「寶壤師의 사적」을 합쳐서 하나의 傳을 만들었고, 그 뒤에 〈海東僧傳〉을 찬술한 자가 그릇된 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기록하므로 인하여 세인들을 많이 미혹하게 하므로 여기에 이를 분변하기 위하여 한 자도 加減함이 없이 두 전을 그대로 실는다.”²⁴⁾고 하였는데 이 글의 내용으로 보서는 鄉人 金陟明이 濫作한 〈光師傅〉(圓光法師傳의 약칭일 것임)이 「수이전」임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寶壤梨木〉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후인이 「新羅異傳」(「新羅殊異傳」의 약칭일 것임)을 개작하면서 「鵲塔璃目的 사적」을 〈원광전〉에다 함부로 기록해 넣었고, 犬城에 관련된 사적을 〈備虛傳〉에 끌어 넣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또 〈해동승전〉(「해동고승

24) 「유사」권 제4, 義解 제5, 〈圓光西學〉조, 말미.

전」의 약칭일 것임)의 작자도 이 잘못된 기록을 따라 글을 덧붙이고 보양사의 전기는 없는 것으로 해서 후인들을 미혹하고 그르치게하니 그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인가?”²⁵⁾라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으로 인하여 〈원광서학〉조의 뒷부분에서 밝힌 바, 향인 김척명이 운문의 開山祖인 ‘보양사의 사적’을 〈光師傅〉에 潤文 濫記했다는 〈광사전〉은 ‘改作」新羅殊異傳」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석보양전〉도 〈광사전〉에 함께 ‘合爲一傳’ 하였으므로 역시 개작 「신라수이전」의 작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유사」에는 安逸 戶長家에 소장하고 있는 고본 「수이전」과 김척명이 개작한 「신라수이전」, 즉 두 종류의 「수이전」을 인용 및 참고했음을 알 수 있고, 작품으로서는 「고본수이전」에 〈원광법사전〉한 편이 실려 있음을 명시 하였고, 개작 「신라수이전」에는 〈보양사전〉과 〈비허전〉이 실려 있음을 문맥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석원광전〉, 〈석보양전〉, 〈석비허전〉등 모두 3편의 작품이 편술자 일연선사의 말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시 한번 다짐해 두거니와 위에서 확인된 3작품은 「유사」의 편술자 일연선사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밝힌 것은 아니고 이본을 대조하고 남작을 시정하는 가운데 저절로 들어나게 된 것임을 밝혀 둔다.

3. 「수이전」의 逸文을 인용하고 출전을 밝히지 않은 작품

「수이전」의 일문 16편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환술 2편과 소설 2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12편이 「유사」에 실려 있는데, 그 중 직접 간접으로 출전이 「수이전」임을 밝혀진 것이 3편이 있고, 나머지 9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9편을 다시 類別해 보기로 한다.

사류 : 야사류: 탈해왕, 선덕왕(知幾一事)

승전류: 석아도전, 석법공전, 석법운전

25) 「유사」권 제4, 義解 제5, 〈寶壤梨木〉조, 끝 부분.

불사류: 보개(민장사)

전설: 연오랑 세오녀

소설: 호원, 심화요탑

1) 史類에 대하여

첫째, 야사류: 「삼국사절요」의 보충 기록에는 「수이전」작품을 3편을 인용하고 있다. 그것은 <탈해왕>이야기와 <연오랑 세오녀>와 선덕여왕의 <牡丹無香>을 예언한 이야기이다. <연오랑 세오녀>이야기는 전설류에 속하므로 다음 조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류에 속하는 <탈해왕>이야기와 <모란무향>을 살피기로 한다.

이 <삼국사 절요>권 제1, <탈해왕>조는 본문 외에 「유사」의 <탈해왕>과 「수이전」의 탈해왕을 나란히 실고 있는데, 본문은 「사기」의 <탈해왕>이야기를 약 4분지 1로 줄여서 요점만 節要하여 기록하였고²⁶⁾, 「유사」의 <탈해왕>은 약 5분지 1로 절요하였으니²⁷⁾, 이에 비해 본다면, 「수이전」도 역시 절요했을 것임은 분명하나 얼마나 절요했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위의 두 작품의 節要率을 감안하여 4~5분지 1정도로 절요하였음을 추산할 수는 있으나 무엇을 생략 또는 탈락시켰는지는 끝부분외에는 추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일연선사가, 「유사」에서 무슨 책을 참고했을까? 그중 중심되는 대본은 무엇이였을까? 「유사」<탈해왕>편의 세주에는 一云(2회), 一作, 古本云, 亦云, 或云 등 字句에 대한 이설 5가지를 참고 사항으로 들고 있으나 그것이 口碑傳承인지 어떤 기록에 의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고, 또 인용 서목에 대하여도 언급한 것이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

26) 「사기」권 제1, <탈해왕>은 전문 약 864자인데 비해 「삼국사절요」의 인용에는 218자로 줄여져 있다. 그리고 끝부분, 왕의 후계에 있어서 「子壻不問」의 내용은 생략하였다.
27) 「유사」의 <탈해왕>은 전문 약 882자인데 비해, 「삼국사절요」에서 「유사」를 인용한 <탈해왕>은 약 198자로 줄여 놓았고, 역시 끝부분의 「角盃貼口」와 「碎骨塑像 改置」등은 생략되고 있다.

할 때, 「수이전」만을 제외했을리는 없는데, 아예 말이 없으니 답답하다.

다음, 「삼국사절요」 권 제8, 〈長女德曼立主〉(선덕여왕)조에는 〈牡丹無香〉 이야기 한 건만 기록했는데, 「사기」에는 이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유사」나 「수이전」을 인용한 듯하다. 따라서 서두에 「수이전」의 인용을 밝히고, 〈牡丹無香〉 이야기만을 세주로 보충해 놓았으니 역시 원문의 분량과 무엇을 생략했는지는 추단할 길이 없고, 다만 「유사」의 〈善德王 知幾三事〉에는 주지하는 바 이 〈牡丹無香〉건 외에 〈女根谷〉사건과 〈死日 葬地豫言〉건이 더 있고, 참고 인용에 대해서는 ‘德曼’의 ‘曼’자에 대해서 一作 ‘万’으로 세주한 것 밖에 아무런 引用기록도 없다. 그러나 「유사」의 찬술 태도로 봐서 신라 선덕왕 (632~646)의 事實을 1310년경에 찬술하면서 「승전」에도 「사기」에도 또 「화랑세기」에도 없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수이전」을 인용 안했을 이가 없는데, ‘一作 万’까지 밝히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없고서야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李承休(1224~1301)의 「帝王韻紀」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에는 “謹據國史旁採各本紀與夫殊異傳所載…”라 하여 「수이전」을 채택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이나 세주의 구체적인 이야기에는 「수이전」을 인용했다는 말이 없다. 하지만 이야기의 내용에 수이성이 짙은 것을 「수이전」에서 채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군본기〉, 〈신라시조혁거세〉, 〈동명본기〉, 후고구려 〈궁예〉, 후백제 〈이전원〉 및 고려 태조의 증조모의 증조인 聖骨將軍의 虎救善人說話와 역시 왕건의 祖父인 景康의 居陀知 型 이야기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7편 가운데 5편이 「유사」에 실려 있으나, 역시 「수이전」의 인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둘째, 승전류; 「海東高僧傳」에는 직접 간접으로 「수이전」을 인용했다는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에는 「수이전」인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작품으로는 〈釋阿道傳〉, 〈釋法空傳〉(법흥왕)이 있고, 그리고 「유사」에 독립 편을 설치하지 않은 〈釋法雲傳〉(진흥왕)이 있다.

〈석아도전〉에 대하여는 金大問의 「鷄林雜傳」에 실려 있는 것을 金富軾이 「사기」의 〈新羅本紀〉에 실었는데, 그 내용이 「韓奈麻 金用行 所撰의 我道和尙碑 所錄과 매우 다르다.”고 하였다.²⁸⁾ 「유사」에는 머리 부분에서 「사기」의 내용을 요약해 쓰고 중간부분에서는 〈我道 本碑〉의 것을 옮겨 쓴듯하고²⁹⁾ 나머지 부분에는 찬술자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아도본비〉의 내용과 「해동고승전」의 후반의 “若按 朴寅亮 「殊異傳」”부분의 내용과 거의 같다. 그런데 인용서목으로는 高得相 「詠史詩」, 「高僧傳」, 「古記」, 「梁高僧傳」, 「唐高僧傳」 등을 거론하면서 역시 「수이전」에 대하여는 말이 없다.

〈석법공전〉은 신라에 불교를 처음 공인하게 한 법흥왕의 사적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적의 내용은 주로 박염축(異次頓)의 ‘殺身成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에 박염축에 관한 기록이 끝난 뒤에 ‘按國史 及古諸傳 商量而述’이라 하여 국사와 옛 여러 傳을 짐작해서 기술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아도비〉를 살펴 보면 법흥왕이 출가해서 법명을 法雲, 자를 法空이라 했는데, 지금 「국사」와 「수이전」에는 둘로 나누어서 입전했으니 옛것을 좋아하는 자는 상세히 검정해 주기 바란다.”³⁰⁾이라 하고, 이어서 다음장에서 〈석법운〉조를 설치하고 있는것으로 봐서 찬술자 覺訓은 ‘分立二傳’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古諸傳’에는 「수이전」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사」에서는 〈原宗興法 罔滅身〉편에 「수이전」을 인용했다는 「해동고승전」의 〈석법공전〉(법흥왕)에 대한 기록을 文飾을 가해서 소상히 실고 있다. 그런데 비록 〈석법운전〉(진흥왕)에 대한 독립입전은 하지 않았으나³¹⁾ 후반

28) 「사기」권 제4, 〈신라본기〉 제4, 〈법흥왕〉 15년조, 끝부분.

29) 〈아도본비〉인용문이 약 500여자가 되고 내용도 잘 짜여져 있으므로 이 정도면 보통 비문으로서는 畵文이라 생각됨.

30) 「해동고승전」 流通 1-1, 〈법공〉조…按阿道本碑 法興王出 法名法雲 字法空 今按國史 及殊異傳 分立二傳 諸好古者 請詳檢焉.

31) 「유사」권 제1, 기이 제1에는 〈진흥왕〉편이 설정되어 있으나 「수이전」을 인용했다는 「해동고승전」의 내용은 없고, 太后가 임종시에 削髮爲僧했다는 이야기와 3년 9월에 백제병이 珍城에 침입하여 남녀 39,000인과 말 8,000필을 약취해 갔다는 짤막한 내용 뿐이므로, 〈석법운전〉을 따로 설치했다고는 볼 수 없음.

부에서 진흥왕 사적에 대한 기록을 몇 가지만 언급하고, 〈撰修國史〉, 〈八關會〉, 〈원화, 화랑〉등에 관한 기사는 여러 편에 흩어져 있는데, 주로 「사기」에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석법운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수이전」을 인용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 다만 여러 인용서목 가운데, “鄉傳云 鬻僞以王命 傳下興工創寺之意 王乃責怒於鬻 刑以僞傳王命”이라 하여 이차돈이 왕과 밀약하고 고의로 ‘철을 지어라’는 명을 내리고 군신들이 항의하자 ‘왕명사칭죄’로 처형하는 내용은 「수이전」을 인용한 〈석법공전〉과 같다. 그렇다면 이른바 〈향전〉 인용은 「유사」 전편을 통하여 매우 많이 나타나는데, 이 ‘향전’이란 인용이 「수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가나 여하간 〈원종홍법 염축멸신〉편에도 「수이전」의 인용에 대해서는 역시 말이 없다.

셋째, 불사류; 成任의 「太平通載」에는 「신라수이전」이라고 출전을 밝힌 작품이 2편 있는데, 그 하나는 권 68에 소설 〈최치원〉이 실려 있으나 「유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다른 하나가 권 20에 실려 있는 〈寶開〉이다. 이 〈보개〉의 내용은 「유사」, 塔像 第四의 〈敏藏寺〉와 내용이 거의 같다. ‘보개’란 말은, 행방불명이 된 아들 長春을 구할려고 민장사 觀音 大悲 전에 7일간 기도한 끝에 홀연히 만나게 되는 어머니의 이름이다.

「태평통재」란 책은 「太平廣記」와 같은 이야기집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름인 ‘보개’를 제목으로 올렸고, 「유사」에는 민장사 관음 대비의 佛力을 誇示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민장사’를 제목으로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유사」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佛史類, 佛事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 〈보개〉는 다른 전적들의 「수이전」 逸文과는 달리 문장이 「유사」보다 확대되어 있다. 「유사」의 〈민장사〉는 전문 151자인데, 여기서는 198자로 潤文하였다. 다른 일문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태평통재」의 특징이다. 그런데 「유사」의 〈민장사〉에서는 출전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

2) 傳説類에 대하여

〈延烏郎 細烏女〉전설에 대하여는 徐居正의 〈筆苑雜記〉 권지 2, ‘日本國大內殿 向慕我國’조에는 서두에서 ‘但「新羅殊異傳」云’라 하여 출전을 밝히고, 「유사」에 〈延烏郎 細烏女〉이야기, 약 230자의 내용을 125자로 요약해서 실었으며, 또 「三國史節要」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다시 119자로 약 6자를 줄였는데, 그 내용은 같은 줄거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사」에는 ‘按日本帝記’³²란 참고 서목 외에 출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小說類에 대하여

소설류는 「유사」의 찬술 취지에 맞지 않은 갈래이다. 그러므로 「수이전」 일문에는 4편이 있으나, 「유사」에는 〈金現感虎〉란 제목으로 1편만이 실려 있고, 〈心火繞塔〉을 사실로 입증해 주는 혜공화상의 영적이 「유사」권 제4 〈二惠同塵〉조에 나타나 있다. 「김현감호는」 문장의 길이가 약 1,246자 정도의 비교적 장문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중국 당나라 때, 申屠澄의 虎女 이야기를 나란히 비교해 놓았다. 이에 비하여 「대동운부군옥」권 제15에 실린 〈호원〉은 약 188자 정도로 축약 해 놓았으나 등장 인물과 사건의 줄거리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소설적인 내용을 「유사」에 실게 되면 佛力の 實證에 信憑性을 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神異性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적인 내용은 「유사」에 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호원〉만이 「유사」에 실린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김현과 호녀가 흥륜사 탑돌이에서 만나게 되고, 김현의 위기를 天唱에 의하여 구제되고, 호녀의 마지막 소원으로 ‘호원사’라는 절을 짓게 되는 등 佛事와 관련된 불교적인 소설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두 작품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대동운부군옥」에서는 출전이 「수이전」임을 명시하고 있는

32) 「일본제기」란 책은 없는데, 굳이 일본의 史書 가운데 가장 근사한 책을 찾는다면, 아마 「日本書紀」가 아닐까 생각된다.

데, 「유사」에서는 역시 묵비해 버렸다.

이상에 살핀 바 「수이전」의 일문 16편중 幻術 2편과 소설 2편이 제외되고 나머지 12편은 그 내용이 「유사」에 실려 있지마는 찬자가 직접적으로 출전을 밝힌 작품은 없다. 그러나 간접으로 출전이 드러난 작품이 3편이 있는데, 그 중 〈원광법사전〉은 두 異本을 대조하기 위하여 「古本 殊異傳」임을 밝혔고, 〈釋寶壤師傅〉과 〈釋備虛傳〉은 개작 「신라수이전」에서 사실과 어긋난 濫作을 밝히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편에 대하여는 출전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12편 모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전을 밝힌 작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즉 ‘主體省略’의 예를 따라 中心臺本을 省略한 것과 ‘妨害 要素의 默秘와 歪曲’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보면, 「유사」에는 얼마나 더 많은 「수이전」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를 탐색하고, 또 두 책의 공통성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유사」의 臺本이 「수이전」임을 입증코자 한다. 다음 장에서 양서의 공통성과 작품을 확대 탐색키로 한다.

III. 「수이전」의 작품 探索과 그 擴大

1. 兩書의 異同性과 「수이전」의 要件

「수이전」에 수록되는 이야기의 종류와 범위는 「유사」와는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수이전」은 순수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 「수이전」일문 16편을 史類, 傳說, 小說, 幻術 등 4가지로 유별한 가운데서 환술과 소설이 「유사」에서는 거의 제외되고 있는 사실로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유사」에는 「수이전」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도 많이 실어 놓았다.

前述한 바와 같이 「유사」의 내용을 크게 봐서 3류로 나눌적에, 〈王曆〉第一은 바로 역사에 해당하므로 글의 성질상 본고의 論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야사에 해당하는 〈紀異〉第一과 第二³³⁾와 나머지 불교사에 해당하는 〈興法〉第三, 〈塔像〉第四, 〈義解〉第五, 〈神呪〉第六, 〈感通〉第七, 〈避隱〉第八, 〈孝善〉第九 등을 대상으로 「수이전」의 殘影을 탐색 확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불교사에는 작품의 내용상 僧傳과 佛事로 양분된다. 승전으로서는 〈석아도전〉, 〈석법공전〉, 〈석법운전〉, 〈석원광전〉, 〈석보양전〉 등은 승의 신분을 주체로 전개되는 신이적인 불력 불사를 말하는 것이요, 불사로서는 〈황룡사구충탑〉, 〈봉덕사종〉, 〈大城孝二世父母〉 등과 같이 사찰이나 塔像 등, 불교 시설물을 이룩하는데, 어떤 신이적인 불력이 개입하고, 기도나 염불과 같은 求道적 佛事에 佛力の 感通을 다룬 작품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의 것으로 「유사」 작품 가운데, 흔히 兆朕에 관한 異變事件들이 흥미있게 삽입되어 나타난다. 이는 찬자가 역사의 흐름에 변수의 기미를 알리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 들였다.³⁴⁾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33) 六堂은 그의 「유사」해제에서 이 〈紀異二〉편은 〈紀異一〉편과 같은 성질을 가진 내용이므로 이를 양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本無하고 또 當無할 第二를 紀異의 外에 更立할 것이 아니매…”라고 하여 「유사」전체의 목록 순서를 王曆 第一, 紀異 第二, 興法 第三, …… 孝善 第九로 일괄 처리 했다.

그러나, 紀異 第二 편은 매우 중요하다. 즉 三國 鼎立에서 新羅 統一의 첫머리가 되는데, 어찌 ‘本無, 當無’라 할 수 있는가? 찬술자 일연은 〈기이 1〉편 첫머리에 단군 신화로써 肇國의 天義를 부여하였고, 〈기이 2〉편 첫머리는 ‘巨屍, 陰禹兆’(출고, 〈文虎王 法敏 條의 巨屍兆 研究〉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삼국유사 연구〉상 1983.)로서 統一의 瑞徵을 부여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 간 校勘 「삼국유사」에서는 正德本, 原文 影印本에 三國遺事 卷第二와 文虎王法敏, 제목 사이에 紀異 第二가 빠진 것으로 교감하였다.

「유사」王曆第一편은 매우 異質적인 편이다. 전체 글의 연대 測定에 참고할려고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편을 독립시키고, 〈기이〉 제1에서 1호선 제9까지 일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4) 百濟와 高句麗가 망할 때는 陰陽의 不調和로 偏積된 陰氣로 인하여 약 30여종의 불길한 조짐이 나타난 바 있다. 이것이 삼국의 통일에 제하여는 적체된 음기가 巨屍의 陰禹로 凝結되었다가 바다에 빠져 斃死함으로써 바다의 염분과 중화되어 없어지므로 인하여 삼국통일과 太平聖代의 조짐을 열었다.

「수이전」 작품 분류에 별개의 항으로 수용코자 한다.

「수이전」을 「유사」의 대본으로 삼기 위하여는 兩書가 공통적 要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수이전」의 주된 요소에는 殊異性이 있고, 「유사」의 주된 요소에는 神異性(불력)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가 「수이전」에 수록 될려면 수이성이 있어야 하고, 「유사」에 수록 될려면 신이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야사류에는 신이성의 작용이 때로는 불력 불사에 집중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이성에는 ‘흥미 본위의 야릇한 감동이나 개인적인 인간사’를 포함하나 신이성에는 이를 금기한다. 그러므로 수이성에서 ‘야릇한 감동이나 속세의 인간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곧 신이성이 되는데, 이때 신이성에는 신비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그 신이는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작용으로서 때에 따라 救援의 靈力이 되기도 하고, 응징의 恐怖力이 되기도 한다.

환술이 「유사」에서 제외된 이유로는, (1) 인생사와 깊이 관련된 주제 의식도 회박하고, (2) 불력의 靈蹟을 사실로 수용하려는 求道者적 태도도 회박하며, (3) 다만 흥미 본위의 이상 야릇한 감동을 유발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유사」 수록에서 제외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소설의 경우, 소설이 승전에 적용 될 때는 〈虎願〉의 경우처럼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수이성, 흥륜사의 탑돌이나 호원사의 연기와 같은 佛事, 그리고 虎惡을 징계하겠다는 天唱의 신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野史에 적용 될 때는 대개 國事 및 사회의 공적인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心火纒塔〉에는 비록 志鬼가 선덕여왕을 사모하지마는 그것은 하나의 여자를 사모하는 것으로 국왕의 신분과는 무관하며, 잠든 사이에 사모하는 연인을 놓치고 戀慕의 안타까움이 가슴에 응결하여 불덩이로 변하고 그것이 터져나와 탑을 회오리쳐 돈다는 신이는 극한적인 인간 심리의 표현일 뿐, 공적인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은 제외되고, 다

만 惠空和尚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3일전에 이절(영묘사)에 나타나서 金堂과 經樓 밑 南門에 새끼줄을 쳐 두었더니, 거기에는 화재를 면하였다는 내용이 「유사」권 4, 〈二惠同塵〉조에 나타나 있을 뿐이다. 〈首插石柵〉의 崔仇의 ‘暴死再生’의 신이나 〈최치원〉 ‘鬼女婚’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유사」의 수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한다.

傳說 類의 〈연오랑 세오녀〉는 한갓 전설에 불과하나, 일본국의 王이 되었으므로 「유사」에서는 야사부에 수록되었고, 〈보개〉는 행방불명된 아들 장춘을 구할려고 민장사의 관음전에 7일간을 기도하여 신통한 불력으로 아들을 만났으므로 佛事에 수록된 것으로 믿어진다.

史類의 야사류인 〈탈해왕〉은 漂海卵生의 신이한 출생담 같은 것은 야사류임이 분명하나, 瓠公의 저택을 講計로서 빼앗는 사건은 일견 개인 문제인 듯하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南海王으로부터 智人으로 인정 받아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므로 야사에 수록됨이 당연할 것이다. 〈선덕왕〉이 牡丹無香을 미리 예견한 것은 일견 개인의 해안을 다룬 逸話이므로 공적인 일과 무관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찬술자의 의중은 ‘於是群臣皆服其聖智’에 귀착하고 있다. 즉 이로 인하여서 모든 신하들이 왕의 지혜에 탄복했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야사일 수 밖에 없다.

이상을 간략하게 조목화 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유사」에 널리 산재해 있는 「수이전」의 잔영들을 적출하고자 한다.

1) 「수이전」의 수이성에서 흥미 위주의 이상야릇한 요소와 개인의 인간 문제를 다룬 소설적 요소를 제거하면 「유사」의 신이성과 공통한다. 때문에 환술과 소설은 제외된다.

2) 「유사」에서는 이야기의 주체가 역사적 인물이거나 사건의 신이성이 공적인 일과 관련된 경우에는 야사에 수록되었다. 때문에 인물과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인생 문제를 다룬 소설은 「유사」에서는 插話 이외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3) 인물과 사건이 승의 신분이거나 사건의 수이성이 불사 불력과 깊이 관련되는 경우는 佛史類의 僧傳 또는 佛事に 수록된다.

4) 「수이전」은 반드시 수이성 있는 서사적인 이야기라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의 기록은 「수이전」작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순한 서사는 「유사」에는 있으나 「수이전」에는 제외된다.

5) 「유사」의 인용서목 가운데 ‘고본’, ‘향전’, ‘고기’등의 4종은 「수이전」³⁵⁾을 便稱했을 가능성이 높다.

6) 「유사」의 독립한 한 편의 작품이 어떤 한 王朝史이거나, 한 王의 斷代史, 또는 어떤 사람의 일대기일 경우에는 「수이전」작품이 插話의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7) 「유사」의 작품 가운데 수이성이 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밝히지 않은 작품은 「수이전」에서 인용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조목을 설정한 근거에 대하여 실제 작품에 대비 시켜 보기로 한다.

1)항의 경우, 「유사」 전편을 통하여 흥미 위주의 이상 야릇한 환술적 요소, 즉 〈老翁化狗〉와 같은 작품으로 독립된 것은 한 작품도 없다. 다만 〈가락국기〉안에 수로왕과 탈해가 왕위를 다투는데 그 우열을 가리기 위하여 變化術로 겨루게 되는 장면에서 ‘매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참새가 되고 새매가 되는 변화술’이 잠시 나올 정도이다.

2)항의 경우, 〈김유신〉, 〈김춘추〉, 〈문호왕 법민〉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삽화 형식으로 된 소설 3편은 흥미소로 끼어 있는 것이다. 기타 독립 소설 6편은 모두 약간식의 국가사나 불사 불력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다.

3)항의 경우, 소설 〈최치원〉이나 〈首插石柵〉과 같은 작품에는 수이성, 즉 신이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주인공의 신

35) 4종 「수이전」 1) 「고본 수이전」 2) 김척명의 개작 「신라 수이전」 3) 최치원의 「신라수이전」 4) 박인량의 「수이전」……조수학; 〈「수이전」의 저술자 및 문체고〉, 영남어문학 17집, 1990. 6.

분이나 사건의 내용에 불사불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항의 경우, 〈又四節遊宅〉이나, 〈伊西國〉과 같은 단순한 기사는 물론, 〈順道肇麗〉나 〈法王禁殺〉등도 수이성이 없으므로 본고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그와 같이 제외된 것이 39건이다.

5)항의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표를 작성한다.

便稱	제 목													回數備考
古本	朴赫 居世	脫解 王	南海 王	武王	圓光 西學	太宗 春秋	桃花 鼻荊	金庾 信	洛山 調信	孝恭 王	梵日 祖師	孫順 埋兒	庚信,2회	
鄉傳	阿道 基羅	原宗 興法	白月 二聖	慈藏 定律	臺山 五萬	大城 孝母			古傳*		三所 觀音	元曉 不羈	白月,3회 原宗,3회	
古記	同上	古朝 鮮	同上	北扶 餘	同上	魚山 佛影	前後 舍利	月精 五聖	靈鷲 寺				白月,2회	

* 위표, 「古本」중에서 「수이전」으로 밝혀진 작품은, 〈탈해왕〉, 〈원광서학〉, 2편이 있고 「鄉傳」 중의 「수이전」으로 밝혀진 작품은 〈아도기라〉, 〈원종홍법〉, 2편이며, 「古記」에는 〈아도기라〉 1편이 있는 점을 유추해 볼 때, 이 '引用 便稱'들을 일단 「수이전」작품으로 수용한다면, 위표에서 「수이전」 작품이 26편이 되고 앞의 제 2장에 열거한 「수이전」, 16작품 중, 제외된 4편과 중복된 것 3편을 제외하고 9편이 있으니, 도합 35편이 밝혀진 셈이다. 다음의 확대 탐색을 합치면 「수이전」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의 수는 108편 정도에 달한다. 그러므로 「유사」의 기본 대부분은 「수이전」이라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神異性和 殊異性的 共通性이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6)항의 경우, 다음의 분류 표에서 소설류 6편과 환술류 1편이 이에 해당한다.

7)항의 경우, 「해동고승전」, 「태평통재」, 「필원잡기」, 「대동운부군옥」등에 「신라수이전」 또는 「수이전」이라고 출전을 명시한 작품과 같은 내용의 작품이 제목을 바꾸어서 「유사」에 실려있는데도, 출전을 말하지 않은 작품이 9편이나 있으므로 이를 확대적용함.

2. 「수이전」작품 探索과 擴大 適用

앞에서 양서의 공통성을 검토하고 이를 요약하여 일목요연하게 조목화한 결과를 놓고 「유사」의 실제 작품에 적용시켜 보면 실로 놀랄만한 결과가 도출된다.³⁶⁾ 「유사」의 약 4분지 3³⁷⁾이 「수이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 이외는 모두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의 조건을 재삼 신중히 검토한 바 있다.³⁸⁾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수이전」의 冊數와 撰述者에 대하여, 1919년 일 본인 사학자 今西龍이 그의 「신라사연구」끝에 〈신라수이전 及其逸文〉이란 短論에서

“수이전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과연 同一書일것이나 혹은 同名異書일 것이나 판명이 되지 않으나, 其書의 異同을 상고할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지 않은 오늘의 입장에 있어서 이를 同名異書라 인정하기 보다는 同一書라 인정하고, 또 저자에 崔, 朴 양설이 있는 것은 저자에 대해서만은 異說이라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후 우리 학계에서는, “남아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同一書로 본다든가, 저자에 대해서만 異說이 있다.”라는 이 該怪한 이론에 현혹되어서 한

36)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필자도 일찌기 놀란바 있는데, 근래 「수이전」을 깊이 이해하는 동학 몇 분이 「유사」의 윤독회를 하면서 “유사”는 곧 「수이전」이다’라고 크게 공감한 바 있다.

37) 「유사」의 전체 편수, 139편 중 위의 7)개 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39편 밖에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수이전」 작품, 또는 다른 작품과 혼합된 작품 수를 합하면 약 108편에 이른다.

38) 池浚模는 1976년에 이미 〈신라수이전 연구〉에서 ‘고본’과 ‘향전’에 대하여 “古本은 「古本殊異傳」의 약칭일 가능성이 있고, 「유사」의 〈원광서화〉편에서 「唐續高僧傳」과 「고본수이전」을 병칭하면서 「唐鄉二傳」이라 하였으니, 鄉傳이라 한 것도 「수이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新羅始祖 赫居世王〉이나 〈大城孝二世父母〉등 17편의 작품을 「수이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한 바 있는데, 당시 필자는 지나친 확대라고 생각한 바 있다. 지금에야 겨우 필자의 단견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선학의 해안에 제삼 감탄과 경의를 금할 수 없다.

세기가 저물도록 ‘작자시비’를 해왔다. 근자 1990년에야 발표한 줄고, 〈수이전의 저술자 및 문체고〉에서 「수이전」이 類別傳임과 著述者의 多數說을 발표하여 겨우 종지부를 찍었다.³⁹⁾

그 결과 현재까지 추정할 수 있는 「수이전」의 종류는 東京 安逸戶長 貞孝家에 소장하고 있는 「古本 殊異傳」과 鄉人 金陟明이 濫記 改作한 「新羅異傳」과 草簡 權文海의 「大東 韻府群玉」의 纂輯書籍目錄에서 밝힌 최치원의 「신라수이전」 및 僧 覺訓의 宣撰, 「海東高僧傳」, 流通 一之一, 〈釋阿道〉조에서 밝힌 朴寅亮 「수이전」 등 4책을 거론할 수 있는데, 그중 김척명이 개작한 「신라이전」은 혹 최치원의 「신라수이전」을 개작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여하간 개작한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므로 4책이라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나타나는 단순히 「수이전」이라는 표현에는 아무래도 관형어(신라, 고본, 고려 등)를 생략한 듯한데, 아무래도 한 두가지 「수이전」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수이전」을 대본으로 한 「유사」소재 작품들도 단순히 「수이전」 작품이라 할 것이 아니라 앞의 4종 「수이전」 어느 것임을 밝혀야 하겠지만 아직 필자의 연구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후일을 기대하면서, 위선 앞, 註에서 밝힌 108편의 「수이전」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수이전」의 유별방식에 따라 위선 제목만 나열해 보기로 한다. 「수이전」식 유별법은 앞에서 이미 적용한 바 있는 방법, 즉 현존 「수이전」 16편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野史類⁴⁰⁾, 佛史類 중에서 ② 僧傳, ③ 佛事, 4) 傳說類, 5) 小說類, 6) 幻述類, 7) 兆朕類 등 7類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한다.⁴¹⁾

39) 조수학; 〈수이전의 저술자 및 문체고〉 영남어문학 제17집, 1990년.

40) 각항에 ‘類’자를 붙인 의미는 정밀한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모았다는 뜻임.

41) 이 작업은 장차 「수이전」의 再構成과 小說 文化的 歷史를 통일 신라 時代로 溯及시키는데,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이해의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실제 「수이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을 밝혀둔다.

1. 野史類	佛 史 類		4. 傳説類	5. 小說類	6. 幻術類	
	2. 僧傳	3. 佛事			7. 兆 朕	
古 朝 鮮 北 扶 餘 東 扶 餘 金 堤 智 哲 老 天 賜 玉 知 幾 三 金 庚 信 金 春 秋 文 虎 王 景 德 王 閻 長 弓 後 百 濟 駕 洛 國 勿 稽 子	忠談師, 表訓 阿道基羅 原宗, 厭觸 法雲, 眞慈 寶叱徒太 圓光西學 寶壤梨木 良志使錫 二惠同塵 慈藏定律 元曉不羈 義湘傳教 王蛇福不言 眞表簡禱 勝詮觸體 心地繼祖	寶藏, 普德 迦葉, 宴坐 遠東, 育王 金官城, 石塔 高麗靈塔寺 黃龍寺, 丈六 黃龍寺九層塔 奉德寺鐘 四佛, 萬佛山 興輪寺, 壁畫 三觀音衆生寺 栢栗寺 前後所藏舍利 芬皇寺, 大悲 洛山二大聖 魚山佛影	脫 解 王 金 關 智 延 闕 郎 竹 烏 軍 射 葉 軍 桃 琴 匣 花 女 長 春 郎 萬 波 息 元 聖 大 處 容 郎 居 陀 知 甄 迎 神 水 路 夫 永 才 遇 孫 順 埋	金庾信, 白石 金春秋, 文姬 車得公, 安吉 竹旨郎, 得烏 金現感虎 善花公主 南白月二 調 信 冠 信 忠 掛 知 萱 歌 兒	惠 恭 王 元 聖 容 處 恭 王 孝 恭 明 景 明 王 首, 脫 角 術	
16	29	32	16	9	6	
합계 108편. ⁴²⁾					6) 환술 1, 7) 조짐.	

42) 「유사」의 총 작품 수 139편에서 수이성이 없는 작품 39편을 제하면 100이 되는데, 여기의 집계 108편이 된 것은 <가락국기>를 야사 1, 전설 1, 환술 1로 나누게 되어 2건이 더하고, <處容郎>의 전반부를 전설로, 후반부를 兆朕으로,

앞에서 「유사」에서는 幻術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여기 ‘수로왕과 탈해의 변신술 경쟁’은 비록 작은 挿話에 불과 하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두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우리 나라에 환술형 설화가 稀貴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수이전」 일문 중, 〈老翁化狗〉와 같은 類型에 속하기 때문에 분리시켰다.

〈김유신〉 가운데 〈백석, 추남〉 이야기는 그 질은 興味도와 개인, 즉 인간의 怨恨 관계를 運회설에 의하여 심도 있게 다룬 점이 초기 小說입직하고, 〈김춘추〉와 〈문희〉 이야기는, 夢兆에 여인의 사랑과 일생의 운명을 걸고 모험을 시도한 것으로 역시 初期 小說로 간주되며, 〈문호왕 범민〉의 〈車得公〉 이야기는 양적으로도 상당히 긴 작품으로, 武珍州 安吉이 非凡한 사람을 알아보고 妻妾으로 손님을 대접하였다가 크게 출세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소설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이야기이며, 에스키모 풍습을 연상케 한다. 〈낙산 2대성 관음 정취 조신〉 중 〈조신〉은 이미 소설로 알려진 작품이다. 그러나 이들 전체 이야기의 본령은 야사, 불사, 전설 등으로 엄연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분리하였다.

〈처용랑〉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약 200여편에 달하고 있으나 모두가 글을 반으로 잘라서 전반부인 처용전설에 관해서만 논급하고, 글 전체를 다룬 연구는 없다. 그러나 전문을 살펴보면 이 글을 저술한 목적은 결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라인의 상하가 모두 歌舞遊戲에 빠져서 도읍이 장차 파멸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兆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전설과 조짐으로 양분하였다.

위와는 반대로 〈김현감호〉의 결말은 비록 虎願寺의 연기 설화로 귀착하지

그리고 〈낙산이대성〉 중의 〈조신〉을 소설로, 〈김유신〉 중의 〈白石〉을 소설로, 〈김춘추〉 중의 〈문희대몽〉을 소설로, 〈문호왕 범민〉 중의 〈車得公〉을 소설로, 〈후백제 견훤〉을 전설로 〈처용랑〉전설을 조짐으로 각각 분리해서 분류한 결과, 합 8건이 붙어났 것임. 이외에도 경문대왕의 ‘王耳忽長’ 조와 같은 일화 내지 소설 류의 「수이전」 작품이 더 있을 것임.

만, 그 부분은 전문에 비하여 너무나 미세하므로 享受者의 관심은 남녀의 애정과 출세에 있으므로 이를 양분하지 않고 그대로 소설류에 넣었다.

〈선화공주〉는 미친한 신분의 마동이가 공주를 노리고 讖謠를 퍼뜨리는 골계를 써서 최고의 사랑을 얻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신분이 상승하여 양가의 調和를 이루었다는, 對決이 아니라 調和를 指向하는 우리 소설의 基調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결말은 비록 미륵사의 연기설화로 이어지나 이 역시 〈김현감호〉와 같은 이유에서 단일 작품으로 처리하였다.

〈신충 괘관〉은 비록 왕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것은 국사와 관련된 왕이라기보다는 개인간의 약속을 다룬것으로 인간의 信義가 중합을 강조하여 송백을 고갈케 한 것은 인간 생활의 요소를 오롯하게 부각시킨 초기 소설이라 하겠다.

〈죽지랑 득오곡〉은 동료간의 의리를 충분히 보여주고, 물욕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저버린 盆宜 아간을 철저히 응징하는 懲惡 소설의 표본이다.⁴³⁾

〈남백월 이성〉 즉 〈노힐부득, 달달 박박〉 이야기는 이미 독립 소설로 인정하는 논문이 나온 바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소설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단일 부류로 취급하였다.

그외 단일 작품으로 취급한 만은 작품 가운데는 여러 건의 이야기가 한데 어울려져 있는데, 이들이 모두 「수이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부만 삽입된 작품이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야사류와 불사류에 많다.

그리고 「수이전」으로 추정되는 윗표, 작품 통계에서 전체 108편 중에 僧傳과 佛事に 속하는 작품이 61편으로 약 6할을 차지한다. 그런데 현재 전하는 「수이전」 일문 16편 중에 7편이 승전 불사류에 속하므로 이는 약 4할 4푼이 된다. 그러므로 兩書의 차이는 1할 6푼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양서의 異同性을 조목화한 제1항에서 “「수이전」의 殊異性

43) 그러나 盆宜의 아들을 잡아서 極寒에 浴洗池中하다가 凍死케하고 牟梁人 從宦者를 併合黜遣하는 등은 야만적인 처사였다.

에서 '흥미 위주의 이상 야릇한 요소와 개인적인 인간사를 다룬 소설적 요소'를 「유사」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처음 「수이전」을 臺本으로 삼아서 「유사」를 편찬할 때, 「수이전」의 작품 중에서 이상야릇한 幻術적 작품과 佛事나 公共事와 관계 없는 순수한 俗世의 人間事를 다룬 小說 작품들은 제외했다는 뜻이다. 이 소설적 요소와 환술적 요소가 위의 통계에서 1할 6푼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사」는 4종의 「수이전」을 대본으로 삼아서 「수이전」의 수이성을 「유사」의 신이성으로 삼아서 불력의 영험을 과시하므로써 불교홍통을 도모한 佛敎史적인 책이다.

IV. 맺는 말

이상 살펴 본 결과 僧 金一然의 「유사」 撰述 態度는 오직 불교 홍통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 바쳤다. 그는 부처의 全知全能을 믿고, 불사 불력에 執着한 상태에서, 그의 치밀한 사고와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여 「유사」의 찬술에 임하였다.

그는 禪師이다. 禪을 하는 자는 흔히 神祕를 체험한다. 신비를 체험한 자는 타의 神異도 믿게 마련이다. 때문에 그는 불력의 초월적인 靈跡을 믿고 이를 實例로서 증명하려고 온갖 神話, 傳說 들을 총동원 하면서도 述而不作의 태도를 굳게 지키고 慈意로 창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술이부작'은 說話意識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實證意識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므로 「유사」의 세 분야, 즉 歷史 분야인 王曆 편과 野史 분야인 紀異 1, 2편과 나머지 神異적인 내용인 興法에서 孝善까지의 7편을 모두 다 같은 實證次元에서 다루어 놓았다.

그는 오직 신라만이 前世 佛地로서 法水長流之地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

므로 신라 월성 동쪽에 迦葉佛이 앉아서 강연을 한 冥坐石도 믿고, 1300년 전에 天竺의 無憂王이 황룡사 丈六尊像에 금칠을 하기 위하여 黃金 三萬 分을 보낸 것이, 진흥왕 17년에 신라에 도착한 것도 믿고, 바다의 바위가 연오랑을 실고 일본에 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도 믿고 “『日本帝紀』라는 책에 기록이 없으니, 아마 小國王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런 류의 말은 비록 「유사」의 139작품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찬자의 집필 태도에는 확고한 事實意識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그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의 의식속에 박히지 않은 것은 손안에 쥐고서도 모른채 하였다. 三國의 왕을 皇帝級으로 취급하여 世家 편을 비워 두면서까지 〈三國 本紀〉를 편찬한 〈高句麗 本紀〉와 〈百濟 本紀〉를 책상 위에 펴두고도 「유사」에는 신라 이야기에만 치우치게 썼다. 그 이유는 오직 新羅 만이 前世佛地로서 法水長流之地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三國遺事」란 책명은 「三國史記」에 遺漏된 사건을 기록한 책명으로 봐야 한다. 그렇치 않고서는 ‘三國’이란 말 뜻이 통하지 않는다. 고조선, 위만조선, 마한 72국,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백제 등등 百國 유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사」의 취급 범위가 범람하는 바람에 〈古朝鮮〉도 실을 수 있는 것이지, 일연선사가 무슨 民族 史觀이 투철해서 〈檀君神話〉를 실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朝鮮時代의 事大主義의 표본은 유가이지만 高麗時代의 事大主義의 표본은 불가였다. 만약 일연이 참으로 민족 정신이 투철했다면 儒·佛·道를 다 배척해야 했을 것이다.⁴⁴⁾

44) 開化 初期에 朝鮮朝의 朱子學에 질력을 느낀 학자들이 儒家만을 事大主義로 생각하고 西歐의 新文化에 陶醉되어서 서구문화는 우리 민족의 앞날을 열어 주는 민족적인 것으로 錯覺한 신사대주의 학자들의 오류가 지금도 대부분의 우리의 학자들 사이에 도미노 현상을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착각은 이 「유사」 문제만 왜곡한 것이 아니다. 우리 고소설의 주제는 千篇一律적으로 勸善懲惡이라느니, 15세기 〈금오신화〉가 우리 소설의 처음이니, 天主教를 탄압한 우리 정부를 惡政으로 보는 견해 등은 新事大家에 의하여 모든 국학분야를 뿌리부터 왜곡시켜 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체적으로 「유사」에 수록하는 작품 선정의 핵심적 요소는 神異性이며, 「수이전」작품의 핵심적 요소는 殊異性이다. 신이성과 수이성의 차이는 개인의 인간적인 생활모습을 다룬 소설과 흥미 본위의 이상야릇한 감동적 요소를 다룬 환술적인 내용을 「수이전」에서는 수용하였고 「유사」에서는 제외한 것이다. 이 차이를 통계 수치로 나타내면 약 1할 6푼이 된다.

이 책에는 찬자의 취지나 의식에 맞지 않은 것은 默秘하거나 왜곡해 버린다.

「수이전」의 逸文, 16편 중에 12편의 내용을 실고 있으면서도, 그 출전에 대하여는 거의 묵비하고 있다. 발견된 3편은 異本 對校와 濫作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저절로 들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이전」을 인용하고도 출전을 말하지 않은 작품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전체 「유사」의 작품에서 약 6할을 점한다는 사실이 위의 전체 통계에서 나왔다. 때문에 「유사」의 대본은 「수이전」이라 할 수 있다.

또 「수이전」은 「유사」를 편찬하기 전에 이미 발견된 것만도 4종이나 된다. 安逸 戶長家 所藏의 「고본 수이전」, 최치원의 「신라 수이전」, 박인량의 (고려)「수이전」, 김척명의 개작 「신라 수이전」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유사」를 찬술하기 이전에 「유사」와 가장 비슷한 「수이전」을 4편 이상이나 두고도 「유사」에 인용 안했을 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책을 인용한 서목은 159책, 242회나 밝히면서 「수이전」에 대하여는 끝내 침묵해 버렸다.

이와 같이 「유사」에서 「수이전」의 출전을 默秘하는 원인 중에는 主體省略과 방해요소를 묵비, 歪曲시키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主體省略의 예로는 「유사」 전체 작품 중 「수이전」 작품이 약 6할을 점하고 보면, 굳이 출전을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둘째, 사건의 의미를 왜곡한 예로는, 「수이전」이란 책이 흥미위주의 신빙성이 별로 없는 책이고 보면, 고의적인 묵비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한가지는 〈射琴匣〉에서 처럼 사건의 주지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왕궁 내전의 焚修僧이 宮主

와 ‘潛通而所奸’하고 왕을 살해하려고 琴匣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伏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게한 (쥐와) 까마귀에 대하여 찰밥을 지어서 푸닥거리를 하면서까지 이를 忌避한다고 하고, 또 원문에 16일로 되어 있는 것을 15일, 즉 정월보름날 약밥지어먹는 세시풍속이다 견강부회하였으며, 중들에게는 일언반구의 반성했다는 말이 없이 슬프다고 ‘달도’라 하면서, 매사를 삼가한다는 방향으로 왜곡시켜 놓은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유사」의 작품을 검토한 결과 전체 작품 수 139편에서 수이성이나 서사성이 부족한 작품 39을 제외하고, 거기에 한 작품을 2분 한 작품 6편과 3분한 작품 1편을 합쳐서 108건의 「수이전」작품을 발표한다.

이로서 千古에 유실한 「수이전」의 한 모습을 대체적인 윤곽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 바탕을 탐색해 보았다. 앞으로 학계 동학들의 질정에 힘입어 「수이전」의 재구성에 임할 가한다.